

4대강 살리기 사업 닷 올린다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생명을 되살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11월 6일 마무리됐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설명회 실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됐다. 또한 평가서 본안 접수 이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총 12차례의 환경평가단 자문회의를 열었으며,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협의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인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였음을 밝혔다. 사업 착공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지난 11월 10일 보 공사를 초두로 하여 본격적으로 닷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11월 22일 영산강과 금강, 27일에는 한강에서 각각 희망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2일 낙동강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의 공식 기공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와 김범일 대구시장의 개식사,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태호 경남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해외인사의 영상 축하 메시지와 낙동강 유역 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는 '녹색생명 터전 위한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4대강 살리기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주사위가 던져진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보완정책과 국민의 협조를 기반으로,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국내 최대 고도정수시설 착공

‘서울시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기공식 열려
120만 가구에 보다 깨끗하고 품질 좋은 아리수 공급 예정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아리수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정수장(총 6개소)에 신개념의 최첨단 정수기법을 도입하고 친환경 정수장으로 재건설을 추진 중이다. 영등포정수센터 및 광암정수센터에 이어, 지난 11월 3일 착공한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인 110만 톤 규모로 총 1,688억원(고도정수 1,5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혜지역으로는 강동구 외 8개구 146개동 1,204천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에 숯과 같은 입상활성탄과 오존 소독 과정을 추가해 수돗물의 맛과 수질을 더 좋게 만드는 설비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정수센터에는 우리나라의 앞선 IT기술을 접목해 수돗물 생산의 전 공정을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유비쿼터스 공정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로써

아리수의 취수·생산·공급 등 모든 과정을 24시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의 정수장은 단지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수돗물과 가까워지는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완공되는 암사정수장에 소나무, 진달래, 야생초화, 자연석 등으로 디자인한 쉼터와 옥상정원 등을 갖춘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

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돗물의 생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리수 홍보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기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6개 모든 정수센터를 친환경 첨단 수돗물 생산 시설로 개선하여 모든 시민고객들께서 지금보다 훨씬 고급화된 고품질 아리수를 믿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아리수 안전성 세계가 인정

**EPA 먹는물 수질 기준, FDA 병물 기준에 모두 OK!
199개 항목 검사 결과 적합 판정, 국제적 수질 입증**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가 세계 우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아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International)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먹는물 수질 기준과 미국 식품의약청(FDA) 병물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월 14일 발표했다. UL은 제품 안전의 대명사인 UL규격을 제정하

는 곳으로 미국 48개주에서 먹는물 검사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NSF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유일한 협력 시험기관이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지난 7월 서울시 수도물평가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불광초등학교의 수도물을 채수해 아리수 병물과 함께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최근 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번에 검사한 내용은 미국 EPA 먹는물 수질기준과 FDA 병물 기준을 포함해

농약, 산업용 화학물질 등 총 199개 항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이들 기관에 모두 16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번 검사에서는 32개 항목을 추가해 안전성 확인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지난 7월 장마철의 한강 원수가 흙탕물 수준(탁도 285 NTU)으로 수질이 악화됐을 때에 수도물을 채수했으나, 검사 결과 정수 처리된 물의 탁도가 0.1 NTU 이하인 '불검출'로 나와 서울시 수처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아리수 수질은 오프라인 실시간 공개 서비스가 지난 6월 UN 공공행정대상을 받음으로써 서울시 상수도의 행정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 수질 검사를 통해 아리수가 국제 수준의 물로 또 다시 입증됐다"며 "앞으로는 서울시가 보유한 수도물의 생산, 관리 능력을 지방 상수도에 기술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외 물산업을 한눈에 보다

상하수도의 모든 것, 2009 WATER KOREA 송도에서 개최
6개국 135개 업체 참가, 최신 기술 및 신제품 선보여



물산업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인 2009 WATER KOREA(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6개국 135개 기업이 490개 부스 규모로 참여했다. 국내외 상하수도 기술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002년 첫 개최 이후 해마다 녹색성장

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물산업 종합 박람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는 그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에게 신제품 홍보의 장을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민관과 산학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물산업

성장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행사 기간 중에는 기자재 및 기술 전시 외에도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상하수도인의 밤, 물 사진 전시회, 취업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에서는 수도서비스 분야에서 업무개선 및 기술발전에 앞장서 온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상 시상식이 거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는 6개 특·광역시와 7개 도의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가정용 급수관과 하수관 연결 공사에 대한 기능을 겨루며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이덕수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개막식에서 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화합과 정보 교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WATER KOREA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